

2015 6. 14 연중 제 11 주일

제 1 독서 : 에제키엘 17,22-24 <낮은 나무는 높이리라. >
제 2 독서 : 고린토 2 5,6-10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복 음 : 마 르 코 4,26-34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연중 제 11 주일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다 보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중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 독서의 말씀을 잘 들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는 하느님의 손에 달렸다는 뉘앙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 독서를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각기 두개로 느껴집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의 몸은 자동차고, 그것을 운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법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티켓을 끊거나 사고를 내서 자동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한개체라고 말씀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에 우리는 어디다 우리의 목표를 삼고 있는가? 즉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디를 지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규를 따라서 가고 있는지? 요즘 삶의 행태를 보면 영혼에 대한 삶을 가질 수 없는 정신 없는 삶입니다. 이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게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어떤 마케팅에 정통한 경제학자가 열네가지의 현대자본주의의 폐단을 열거해 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모두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돈에 구애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것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의 세상이, 우리 세상의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시간과 돈과 능력,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어떤나라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주 조그맣고 보잘것 없는 겨자씨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되어 무슨일을 하느냐? 바로 새의 둥지를 틀게 해 주지요. 바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능력은 아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둥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것이 부족하고, 내가 더 가져야되겠다고 정신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게됩니다. 하느님께서 늘 예언자들과 또 그 아들 예수님, 또한 교회를 통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겨자씨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자라나서 크게되었을 때에 겨자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험벗은 이들이 우리안에 머물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지는 얼마나 소중한고, 또한 어렵고 힘든이들이 그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지! 혹은 나는 나 자신만을 살기위해서 내 이웃에게 거듭거듭 상처와 실망을 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미사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저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 주셨으니, 저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저희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낮은 나무는 높이리라.>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7,22-24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92(91),2-3.13-14.15-16(◎ 2 ㄱ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 2 독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 5,6-10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값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26-34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